

동남아 주요국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부연구위원
sikwak@kiep.go.kr

배찬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부연구위원
ckbae@kiep.go.kr

정재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jwcheong@kiep.go.kr

이재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jhlee@kiep.go.kr

신민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mlshin@kiep.go.k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기업의 해외진출은 현재보다 나은 경영환경을 찾아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에 대비하는 생존전략으로 이해되어야 함.
 - 2000년대 초중반까지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투자 건수가 전체 동남아 해외직접투자 건수 대비 40%에 육박했지만, 2006년 이후 하락하면서 현재 30% 점도를 유지하고 있음.
 - 반면에 현지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투자한 건수는 2006년 이후 급증하여 전체 투자 건수 대비 35%를 넘어섰음.
 - 우리 기업이 저임 노동력 활용보다 현지시장 진출을 강조한 것은 동남아 투자환경의 변화를 기업 스스로 인식했기 때문일 것임.
- 본 연구는 동남아의 투자 환경변화 가운데 노동시장의 변화에 관해 분석하고 우리기업 및 정부에게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은 향후 상당기간 동안 풍부한 노동공급 여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우리 기업에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여겨질 것임.
 - 그러나 동남아 국가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확대하고 있음.
 - 또한 동남아 국가들이 내수증가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현재 빠르게 상승시키는 중임.
 - 이 같은 변화가 동남아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전보다 높은 노무비용과 생산비용을 요구함에 따라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민주화와 노동자의 의식변화, 임금상승, 시장진출형 투자 증가 및 노임의존형 투자감소로 요약되는 동남아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에 한국의 진출 중소기업이 기존 관행이나 투자전략으로 대응한다면, 한계에 부딪힐 수 있음.
 - 현재 출현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변화는 앞으로 일정 기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노동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동남아 주요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투자요인 가운데 하나인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특징을 규명하고, 현재 우리 진출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임.

-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 기업과 정부의 향후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동남아 노동시장의 환경변화 배경

-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 중인 인도차이나 국가들이 낙후된 노동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현대화를 서두르는 것은 노동환경의 변화를 재촉하는 계기가 됨.

- 특히 과거 동남아 국가들이 수출 경쟁력 확보 및 외국인투자 유치에 위해 소극적인 노동 정책을 펼친 데 반해 최근에는 친노동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동남아 각국의 노동 관련 정책이 변화한 배경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소득이 증가하면서 동남아 노동자들이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되었고 인권에도 눈을 뜨게 됨.
 - 노동자의 의식변화에 대응해 각국 정부는 노동 관련 제도를 정비할 수밖에 없었고 노동정책의 방향성과 목적도 수정함.
- 동남아 각국 정부가 경제성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의 결과가 동남아 노동시장의 환경을 변화시켰음.
 - 200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누려온 동남아 각국이 글로벌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높은 대외의존도에서 야기된 위험을 경험함.
 -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국 노동자의 실질소득 증가와 내수시장의 확대 필요성을 각국 정부가 인식한 점이 노동정책의 변화를 야기함.
- 정치권의 포퓰리즘적인 활동이 친노동자 정책을 이끌었다는 주장도 존재함.
 - 예를 들어 태국의 잉락 친나왓 전 총리가 총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전국을 단일 최저임금체제로 전환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음.
 -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도 노동자의 대규모시위와 야당의 정치공세를 무마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음.

- 이상과 같이 동남아 노동시장의 환경변화는 현지 정부와 노동자의 요구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판단되므로 현재의 노동시장 환경변화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우리 진출기업들은 동남아 지역의 노동 관련 법·제도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 동남아 노동시장 구조의 특징

1) 동남아 지역 노동공급의 특징

-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증가율과 인구구성 중 청년층 비중이 높음.
 - 취업자증가율이 대략 인구증가율에 근사하므로 이 지역에서 취업자 증가를 예측할 수 있음.
- 인적자원의 질적 개선이 미약하게나마 나타나고 있음.
 -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록률을 2002년과 2012년으로 나누어 비교해보면 대부분 동남아 국가에서 등록률이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서 최근 10년 사이에 큰 폭의 대학교 등록률 증가가 나타난 점은 이 지역에서 중간관리자 및 고급인력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함.
-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가 달성되면 숙련노동자의 역내 인력이동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함.
 - 하지만 지금까지 합의된 결과로는 저 숙련노동자에 대한 이동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2) 동남아 지역 노동수요의 특징

- 동남아 각국에서 노동 수요구조가 다각화되고 있음.
 - 과거 농업 중심적인 산업구조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단순노무 종사자와 농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으로 종사자 직종 분포가 확대되고 있음.
 - 한편 신규창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수요구조 다각화에 기여하고 있음.
- 동남아에서 경제성장이 많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 한국계 제조업체가 주로 진출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를 중심으로 고용탄력성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의 성장보다 2000년대 후반의 성장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음을 알 수 있음.
 - 다만 이 지역에서 최근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는 반면, 노동생산성은 완만하게 상승세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생산성 대비 과도한 임금인상은 자본의 상대가격이 노동보다 저렴해지면서 노동집약산업에서 자본집약산업으로 투자지형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을 예고함.

- 이 경우 중간관리자나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증가와 이들에 대한 임금인상을 예상할 수 있으나, 이 지역에서 인적자원의 질적 개선에 따른 공급증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므로 임금상승 압력은 장기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국가별로 임금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사무직 종사자가 생산직 종사자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었고, 도소매업, 교통, 건설, 통신 및 소프트웨어, 금융 및 보험 등 서비스업 종사자가 제조업 종사자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향후 자료가 허용된다면 직종별 임금격차가 개인의 역량과 상관없이 결정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임.

다. 한국기업의 동남아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

-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은 동남아 노동시장 환경이 우리 기업의 동남아 진출 결정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됨.

- 지식자본모형에 동남아 노동시장을 대리하는 각국의 임금과 교육수준에 대한 변수를 추가하여 실증분석모형을 구성

- 실증분석 결과, 동남아 임금인상은 현지생산비용을 증가시켜 한국의 동남아 직접투자를 감소시키는 요인이었으며, 특히 한국의 제조업 직접투자가 임금인상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함(부표 1 참고).

- 제조업 부문별로 기술적 특성에 따라 임금에 대한 반응도가 달랐음.
 - OECD 분류상 저급기술과 고급기술 부문에서 임금인상에 대한 투자 감소의 정도가 크게 나타났지만 중·저급 기술의 투자는 임금인상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부표 2 참고).
-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인상 시 투자액이 더욱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부표 3 참고).
- 동남아의 교육수준 향상은 전반적으로 동남아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중·저급 기술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교육수준의 향상과 함께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됨(부표 2 참고).

- 이상의 결과는 한국의 동남아 투자가 저급기술을 요구하는 단순노동집약 산업에서 중·저급 기술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함.

- 한편 공식적인 분류상 고급기술산업에 대한 투자로 분류되었던 것이 실질적으로는 단순가공과 포장 등과 같은 노동집약적 생산공정에 대한 투자일 수 있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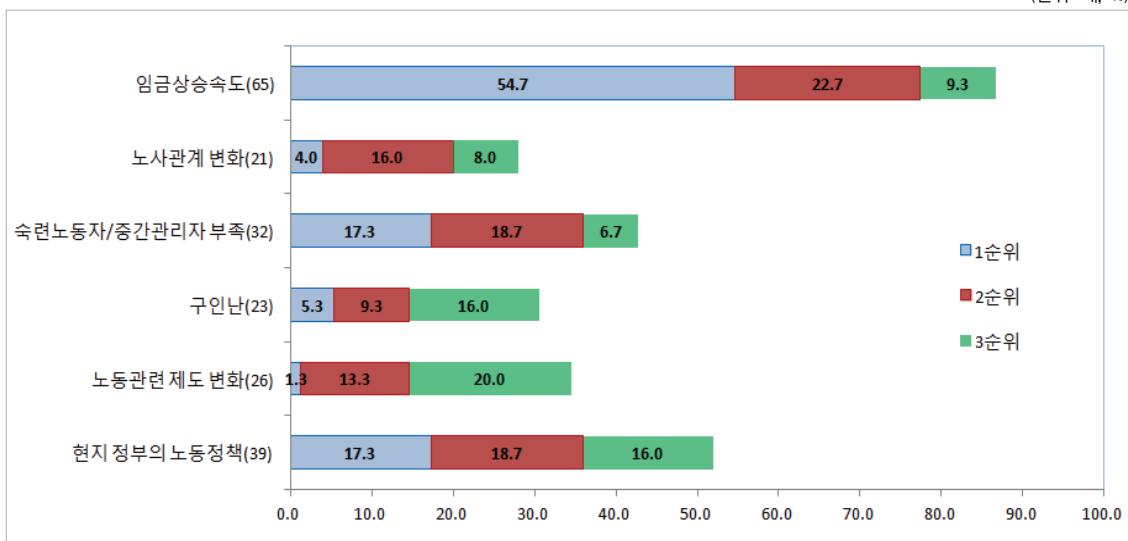
- 게다가 동남아 신규투자 분석결과, 동남아 현지 생산비용 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은 노동집약적 생산공정의 입지로 여전히 동남아 국가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부표 4 참고).
 - 이 결과는 연구진이 수행한 설문조사에서 이미 진출한 제조업 종사기업들이 노동시장 환경이 악화하여도 이전하지 않겠다는 답변과 그 맥을 같이 함.

라. 동남아 진출 기업대상 설문조사 결과

- 동남아에 진출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진출기업들이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로부터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임금상승 그 자체 때문만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우리 진출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빠른 ‘임금 상승속도’였고 그다음 순위가 ‘노동정책과 제도 변화’였음.
 - 즉 임금 자체보다는 임금 상승속도가 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음.

그림 1. 동남아 주요국의 노동시장환경 중 기업경영에 미치는 애로사항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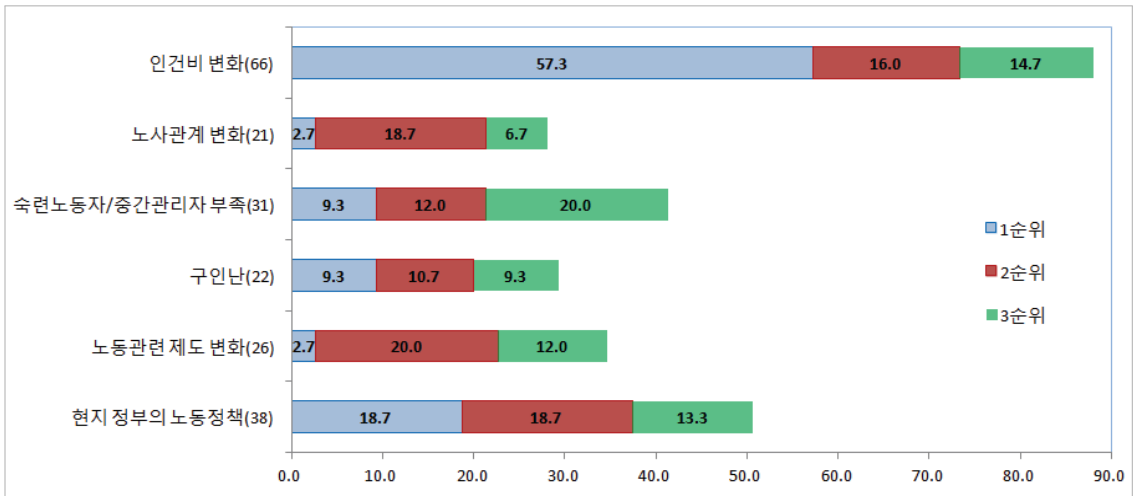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응답한 기업수의 합계를 의미한다.

자료: 설문조사를 토대로 저자 작성.

- 향후 기업경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요인도 대다수 기업이 ‘인건비의 변화’를 선택함.
 - 섬유·봉제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 인건비 상승속도가 가장 심각한 애로사항이라고 답함.

그림 2. 노동시장 환경변화 중 향후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칠 요인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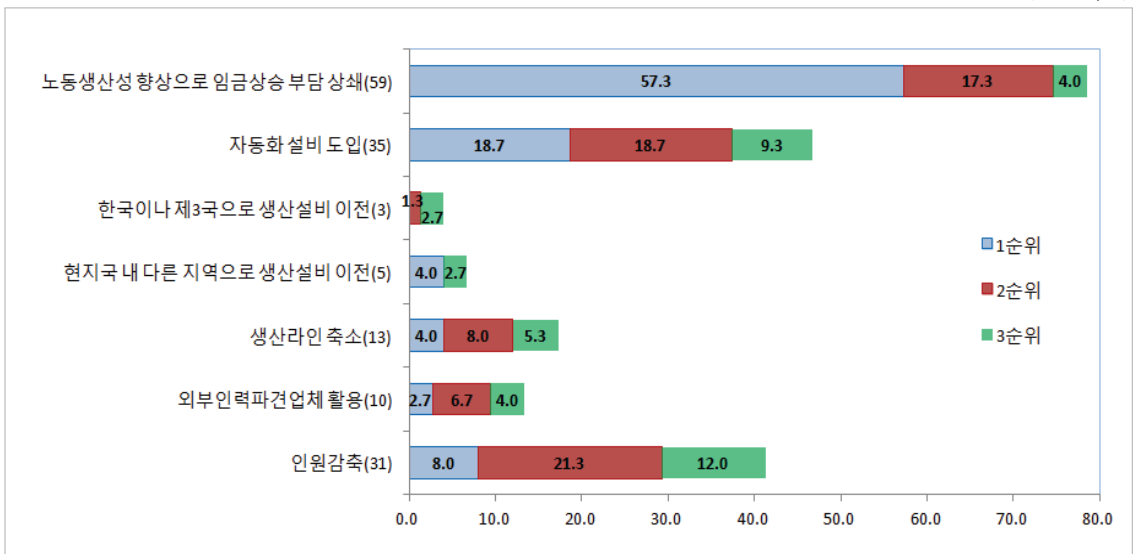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응답한 기업수의 합계를 의미한다.

자료: 설문조사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최근의 임금상승에 대해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57.3%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극복하겠다고 답함.

그림 3. 최저임금 급상승에 따른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단위: 개, %)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응답한 기업수의 합계를 의미한다.

자료: 설문조사를 토대로 저자 작성.

- 향후 노동환경 변화가 심화할 경우 기업의 대응전략을 묻는 말에 응답기업의 73.3%가 제3국이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보다는 생산성 향상 등 자구책을 통한 ‘현지화’로 극복하겠다고 답함.
 - 기업이 이전보다 현지화를 선택한 이유는 임금과 같은 가변비용의 증가가 이전에 따른 고정비용의 증가보다 낮기 때문일 것임.
 - 또한 인근의 이전 후보지로 고려되는 국가들도 노동시장 환경이 유사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일 것임.
- 임금 자체보다는 임금상승 속도에 기업들이 주목했다는 점과 앞서 수행한 신규투자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서 생산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남아가 노동집약적 생산공정의 입지로 선택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들이 현지화를 택한 것은 위의 두 가지 설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우리 진출기업은 동남아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남아를 투자할 가치가 있는 곳으로 여기는 것으로 판단됨.

3. 정책 제언

가. 현 해외진출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

- 현재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도구로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진출 지원정책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 번째 특징은 진출 지원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하기 위해 진출 지원 부처간 중복 및 경쟁을 재도입했다는 점임.
 - 지난 MB 정부는 국내와 해외로 지원체계를 이원화한 반면에 현 정부는 다양한 지원기관간 경쟁이 가능한 체계를 수립하고 기관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이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는 양적 성장위주의 지원정책으로는 더 이상 신보호무역주의의 등장과 같은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 때문일 것임.
 - 두 번째 특징은 진출 희망기업을 역량별·단계별로 나누고 단계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수출준비 단계에 위치한 기업에는 수출교육, 홍보디자인 개발 지원, 컨설팅 지원, 타당성 조사, 무역정보 등을 제공해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음.
 - 시장진출 단계에 속한 기업에는 무역촉진단 파견 및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을 지원하고 신흥시장 개척과 관련된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마지막 시장확대 단계로 분류된 기업에는 산업기술 국제협력 강화와 해외투자진출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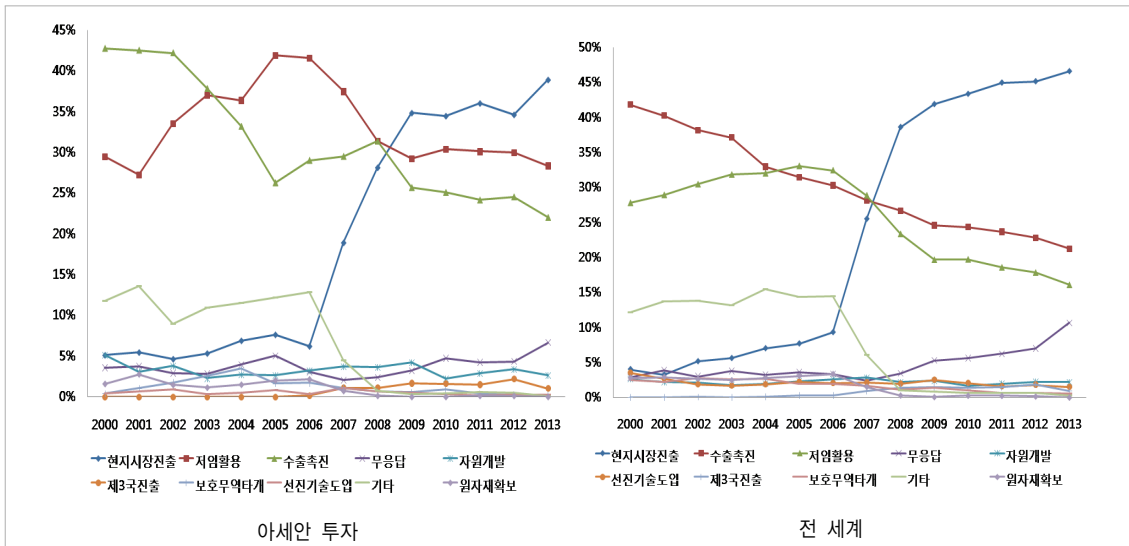
● 그러나 우리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주로 두 번째 단계인 초도 시장진출 단계에 집중되어 있고 시장 확대단계에 위치한 기업에 대한 지원은 드문 것으로 파악되었음.

-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동남아의 노동시장 환경이 악화되어도 우리기업에게 동남아는 여전히 투자처로서 매력적인 곳이었음.
 - 동남아에 이미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현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출기업 대부분이 현지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고 현지화를 통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히고 있었음.
- 동남아에 이미 진출한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현지화 전략은 초도진출이 아니라, 이미 현지에서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므로 우리 정부의 진출기업지원 정책의 분류상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나 현재 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
 - 현지 조사에서 대다수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우리 정부의 지원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지 않았고 시장확대와 관련된 지원책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음.

● 그러므로 동남아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이 성공적으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현지화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현지화 지원정책을 통해 우리 진출기업이 동남아의 환경변화(노동시장, 경영여건)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진출기업 지원정책의 대상이 초도진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 동남아에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정책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푸념을 접할 수 있었음.
 - 현재 동남아의 노동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진출기업 지원방안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정부는 우리 진출기업의 해외 진출목적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오면서 변화했음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진출 지원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한국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초중반까지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투자 건수가 전체 동남아 해외직접투자 건수 대비 40%에 육박했지만, 2006년 이후 하락하면서 현재 30% 선을 유지하고 있음(그림 1).
 - 반면에 현지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투자한 건수는 2006년 이후 급증하여 전체 투자 건수 대비 35%를 넘어서고 있음.
 - 이같이 우리 기업이 저임 노동력 활용보다 현지시장 진출을 강조한 것은 동남아 투자환경의 변화를 기업 스스로 인식했기 때문일 것임.

그림 4.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목적 변화 양상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를 저자 작성(<http://211.171.208.92/odisas.html>, 접속일: 2014. 10. 1).

나. 제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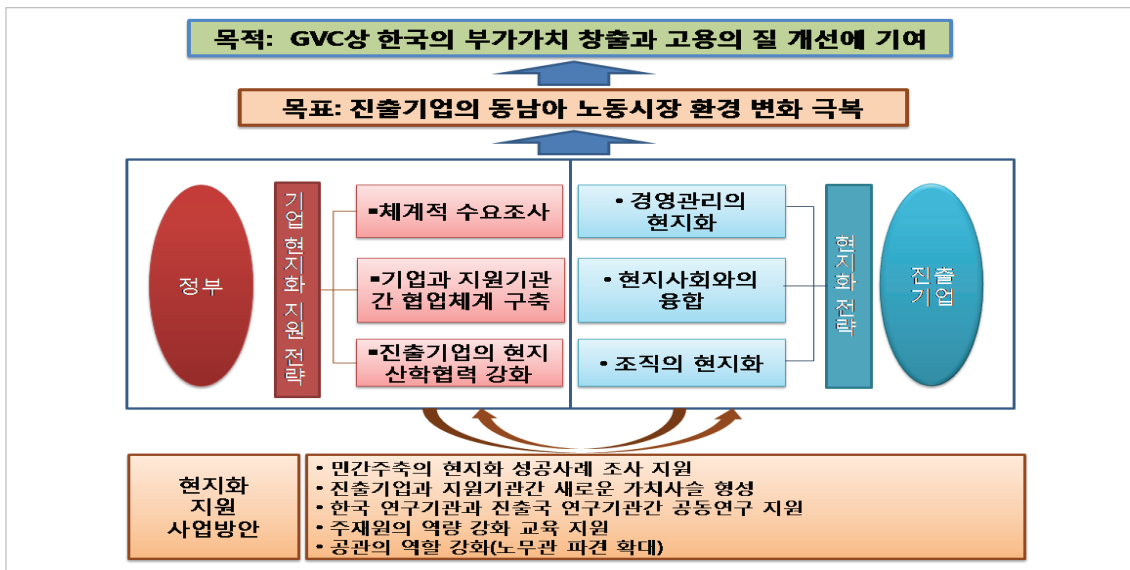
●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남아에서 진행 중인 노동시장의 환경변화가 우리 진출기업의 활동에 일정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영향 정도는 산업별·기술 수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따라서 동남아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충격을 받고 있는 우리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도 그 영향 정도에 따라 차이를 둘 필요가 있으므로 산업별·기술 수준별로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진출 희망기업을 역량별·진출 단계별로 분류한 후 초도진출 지원에 집중해 오다보니, 이미 진출한 기업이 시장을 확대 하려고 할 때 필요한 지원책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펼침에 있어 초도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에 국한하여 집중하기 보다는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외진출기업 지원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방식은 진출기업의 산업별·기술 수준별로 차별화할 필요

●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이미 해외에 진출하여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관해 고민해 봐야함.

- 왜냐하면 해외에 위치한 기업에 재정을 활용하여 지원했을 때, 국내로 효과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세금을 납부한 국민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글로벌가치사슬이 확대되면서 국내에 남아 있는 기업과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 간 생산분업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고, 생산된 부가가치가 사슬고리를 통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 재정을 통한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이 헛된 일이 아닐 것임.
 - 물론 해외에 위치한 기업이 국내생산과정을 상대적으로 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제한적이라고 주장도 존재함.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내생산성과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하므로 지원에 앞서 산업별 · 기술 수준별로 그 효과를 미리 식별하고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면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현지에 이미 진출한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할 때 한국의 부가가치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먼저 식별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간과한 지원은 재정투입의 당위성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지원 전략의 최상위 목적을 기존의 산업지원정책을 재편하여 글로벌가치사슬상에서 한국의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설정된 목적하에 동남아 노동시장 환경 변화가 가져오는 애로사항을 이미 진출한 기업이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하위 목표로 설정할 수 있음.

그림 5. 정부의 현지화 지원전략 개념도



자료: 저자 작성.

다. 정부의 지원전략 및 방안

1) 진출기업에 대한 체계적 수요조사

- 산업별 기술 수준별 지원의 필요성을 앞서 강조했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진출 기업의 수요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은 업체가 활용하지 않을뿐더러, 업종별, 규모별로 기업들은 현지화 전략의 추진 정도가 달랐고,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도 다름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
 - 이질적인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수의 기업이 만족할 수 있는 현지화지원 정책을 제공한다면 정책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음
- 수요조사를 투자대상국 정부 산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한다면 우리기업의 고충을 진출국 정부에 알리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

2) 진출 기업과 우리 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 현지에 이미 진출한 기업들의 현지화 추진 경험을 지원기관이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업종별 기업협회를 통해 진출 경험을 체계화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기업에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면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이미 KOTRA에서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조사하여 공포하고 있지만,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유인책을 마련하고 민간 협회차원에서 체계화한다는 점이 차별됨.
- 우리 지원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민관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형태로 우리 민간기업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려
 - 예를 들어 우리 ODA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민관협력사업(PPP) 형태로 기업을 참여시키는 것임.
 - USAID는 개발도상국의 개발에 기업의 참여를 세계개발전략체류(GDAs: Global Development Alliances)라는 이름하에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음.
 - 이 같은 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도 연결되므로 현지 사회와의 융합이라는 차원의 기업의 현지화 전략을 촉진함.
 - 구체적 추진방안으로 ODA 직업훈련 사업과 민간 기업 간의 연계성 강화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경영관리의 현지화 차원에서 우리 기업이 가장 크게 느끼는 애로사항은 직무에 적합한 현지 직원의 채용이었음.
 - 우리 기업들이 주로 진출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은 산업화의 역사가 짧아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 인력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고급인력 채용은 업체간 경쟁이 심해 어려움

을 느낀다는 업체가 많았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었음.

- 중간관리자 구인을 두고 서구 다국적 기업과 경쟁이 심화된다면 중간관리자와 숙련공 고용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임.
- 이미 우리 정부는 동남아 주요 투자대상국에서 ODA 사업으로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나,¹⁾ ODA 사업으로 직업훈련소를 건설해도 대부분 사업에 지원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따름.
 - 지원기간이 경과하면 수원국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하나 운영역량이 부족하면 사업이 실패로 귀결될 확률이 높았음.
 - 만일 직업훈련소를 우리 정부가 설립해주고 양성될 인력을 우리 기업이 수요하는 구조를 만든다면 사업의 지속가능성은 향상될 것임.
 - 그리고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커리큘럼을 작성하고 진출기업에서 직업교육(OJT: On the Job Training)을 받을 수 있도록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도 있을 것임.
 - ODA로 설립한 직업훈련소에 우리 기업의 신규인력을 위탁해 교육할 수도 있음.
 - 위탁비는 교육기관의 수입으로 활용될 수 있고, 교육생은 우리 기업이 채용할 수 있음.
- 이 같은 순환구조가 완성된다면 새로운 차원의 가치사슬이 형성되는 것으로, 이 가치사슬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노동공급 부족 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할 것임.

3) 진출기업의 현지 산학협력 강화

- 동남아 각국의 노동문제 전문가가 이 지역 노동시장의 환경변화가 우리 진출기업의 운영에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었음.
- 또한 산업별로 영향정도가 다를 것을 인식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이미 많은 혜택을 보고 있으므로 노동환경변화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음.
 - 이 같은 인식을 가진 배경은 우리 기업이나 정부가 현지 학계와 네트워크를 강화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임.
- 노동 시장관련 정책이 현지 노동전문가를 비롯한 학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는 우리 진출기업에 중요하므로 우리 기업과 현지 학계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기업협의체가 현지 생산요소시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때 정부는 한국의 연구기관을 활용해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진출국 현지 연구기관과 우리 연구기관과의 노동시장 관련 공동연구를 추진하도록 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도 있을 것임.

1) KOICA는 한·베기술대학을 2014년 베트남 박장성에 개교하였다. 이 대학은 4개 공과(전기, 전자, 기계, IT)에 720명, 자동차에 90명의 학생을 뽑아 2017년부터 연간 약 810명의 기술 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다.

- 추가적으로 다국적 기업이 현지에서 산학협력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음.
- 현지 노동문제 관련 학계전문가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의 주재원의 역량배양도 중요함.
 - 진출국에 대한 이해 없이 현지의 노동문제 전문가를 설득하기 어려우므로, 진출국 주재원에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현지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네트워크 구축차원에서 더욱 효과적이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현지 대학에 위탁하여 주재원 역량강화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그 운영을 한인상공회의소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 정부는 공관을 통해 프로그램의 이니셔티브만을 제공하고 운영자금은 기업이 각출로 충당할 수 있을 것임.
- 현지 전문가와 우리 기업을 연결할 때 우리 공관의 역할도 중요함.
 - 현재 동남아에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공관에만 노무관이 파견되어 있음.
 - 노무관은 현지 노동정책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노무관이 배치되지 않은 공관에 추가적인 파견을 통해 진출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
 - 노무관은 현지 정부의 정책변화 뿐만 아니라 현지 노동문제 전문가 및 학계와 네트워크 강화에 노력해야 함.
 - 강화된 네트워크를 활용해 진출국 현지 학계 전문가와 우리기업을 한자리에 모아 세미나나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계에 진출 기업의 의견을 전달하는 중간자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 우리 진출기업간에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구심점이 되어 기업의 애로사항을 취합하여 강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 노동문제 전문가에게 전달할 필요

[부록]

부표 1. 한국의 동남아 직접투자 결정 요인(전체 표본)

	(1)	(2): t-1기	(3)	(4)
ΣGDP_{kjt}	1.655*** (.5802)	1.781*** (.6663)	1.651*** (.5805)	1.648*** (.5828)
SM_{kjt}	.4283*** (.0673)	.5372*** (.0791)	.4301*** (.0676)	.4295*** (.0679)
FTA_{kjt}	.2430** (.1196)	.1449 (.1401)	.2443** (.1197)	.2437** (.1198)
INV_{jt}	.0661*** (.0267)	.0778** (.0338)	.0659** (.0267)	.0659** (.0267)
WS_{jt}	-.2115** (.1102)	-.2438* (.1325)	-.1961* (.1201)	-.2122** (.1104)
WSS_{jt}			-.0298 (.0942)	
EDU_{jt}	2.496** (1.316)	1.064 (1.581)	2.494** (1.316)	2.585* (1.472)
$EDUS_{jt}$				-.1606 (1.190)
산업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지역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투자자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관측치수	3,019	2,123	3,019	3,019
Adj. R2	.8124	.8245	.8124	.8123

주: 1)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2) () 안의 숫자는 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낸다.

3) 모형 (2)는 설명변수로 전기(t-1)의 자료를 사용한다.

자료: 저자 작성.

부표 2. 한국의 동남아 직접투자 결정 요인(제조업 기술특성별)

	(1)	(2)	(3)	(4)
ΣGDP_{kjt}	.5392 (.7514)	.5816 (.7509)	.6901 (.7507)	.7822 (.7502)
SM_{kjt}	.9083*** (.0939)	.9043*** (.0938)	.8690*** (.0920)	.8532*** (.0918)
FTA_{kjt}	.1019 (.1448)	.0949 (.1447)	.1056 (.1468)	.0909 (.1465)
INV_{jt}	.1127*** (.0320)	.1126*** (.0320)	.1124*** (.0321)	.1081*** (.0321)
WS_{jt}	-.5114*** (.1921)	-.4979*** (.1920)	-.2697* (.1510)	-.2596* (.1480)
$WS_{jt} \times Tech$	.2952** (.1345)			
$WS_{jt} \times Tech1$		.4935*** (.1702)		
$WS_{jt} \times Tech2$		.2693* (.1553)		
$WS_{jt} \times Tech3$		.0118 (.2006)		
EDU_{jt}	4.980*** (1.756)	4.860*** (1.755)	3.992** (1.808)	3.851** (1.801)
$EDU_{jt} \times Tech$			1.377 (1.609)	
$EDU_{jt} \times Tech1$				6.441*** (2.125)
$EDU_{jt} \times Tech2$				-.7911 (1.983)
$EDU_{jt} \times Tech3$				-4.387 (2.882)
산업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지역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투자자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관측치수	1,674	1,674	1,674	1,674
Adj. R2	.4083	.4115	.4068	.4115

주: 1)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2) () 안의 숫자는 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낸다.

자료: 저자 작성.

부표 3. 한국의 동남아 직접투자 결정 요인(투자자 규모별)

	전체 산업		제조업	
	(1)	(2)	(3)	(4)
ΣGDP_{kjt}	1.616*** (.5812)	1.651*** (.5810)	.5144 (.7992)	.4770 (.7973)
SM_{kjt}	.4396*** (.0678)	.4339*** (.0678)	.7803*** (.0981)	.7820*** (.0979)
FTA_{kjt}	.2355** (.1200)	.2265** (.1199)	.1077 (.1564)	.1072 (.1565)
INV_{jt}	.0666*** (.0267)	.0652*** (.0267)	.1035*** (.0346)	.1002*** (.0347)
WS_{jt}	-.2638** (.1159)	-.2167** (.1103)	-.3756** (.1610)	-.3036** (.0969)
$WS_{jt} \times Large$	.1593* (.1003)		.3570*** (.1437)	
$WS_{jt} \times Persn$	-.0537 (.1745)		-.1546 (.2119)	
EDU_{jt}	2.432* (1.317)	2.558* (1.530)	2.922 (1.869)	4.509** (2.170)
$EDU_{jt} \times Small$		.2991 (1.251)		1.546 (1.771)
$EDU_{jt} \times Persn$		-3.694* (2.241)		-5.501** (2.780)
산업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지역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투자자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관측치수	3,019	3,019	1,674	1,674
Adj. R2	.8125	.8125	.3033	.3016

주: 1)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2) () 안의 숫자는 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낸다.

자료: 저자 작성.

부표 4. 한국의 동남아 신규 직접투자 결정 요인(제조업 표본)

	(1)	(2)	(3)
ΣGDP_{kjt}	1.205* (.7213)	.6498 (.7504)	.8034 (.7419)
SM_{kjt}	.8985*** (.1025)	.8195*** (.0996)	.8056*** (.0977)
FTA_{kjt}	-.1780 (.1099)	-.1410 (.1121)	-.1454 (.1099)
INV_{jt}	.1186*** (.0380)	.1083*** (.0397)	.1075*** (.0395)
WS_{jt}	-.0893 (.1205)	-.1926* (.1164)	-.1626 (.1154)
EDU_{jt}	3.924** (1.739)	2.669* (1.647)	2.529 (1.637)
Large	-.0377 (.0992)	-.0445 (.0873)	-.0399 (.0874)
Small	1.674*** (.1412)	1.459*** (.1375)	1.456*** (.1369)
CLMV	2.767*** (.2485)	2.304*** (.2369)	2.338*** (.2388)
Tech		-.2959*** (.1181)	
Tech1			-.4962*** (.1269)
Tech2			-.3279*** (.1272)
Tech3			.0859 (.2091)
산업더미	포함	미포함	미포함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관측치수	1,765	1,765	1,765
Adj. R2	.2871	.1652	.1692

주: 1)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2) () 안의 숫자는 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낸다.

자료: 저자 작성.